

### '국제포토저널리즘 작가 초대전' 오픈 포럼 열려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29일까지 문화전당



"세계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으면 풍요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포토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한나 레예스 모랄레스)

한국과 필리핀, 홍콩, 태국의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포토저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아시아문화가 주최·주관한 '아시아문화 국제사진공모전'은 5·18 40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과 함께 부대 행사로 '국제포토저널리즘 포럼 작가 초대전'과 참여 작가들이 함께하는 포럼 행사를 준비했다.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오픈 포럼'은 코로나 19로 유튜브 생중계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의 성남훈·이상엽·강제욱 작가가 참석했으며 태국의 비나이 디타존, 홍콩의 로렐 출, 필리핀의 한나 레예스 모랄레스 작가는 인터넷으로 함께했다.

아트컴퍼니 모이모(대표 서지환)이 기획한 이날 포럼은 참여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상엽 작가가 사회를 맡아 치열한 현장을 포착해 온 작가들의 소감과 활동상, 다큐 사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필리핀 정부가 벌이고 있는 마약 단속 사태를 꾸준히 취재해온 한나 레예스 모랄레스 작가는 "다큐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언론인에 대한 위협 등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지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찍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사진작가는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진을 통해 공유하고, 많은 사람이 옳은 가치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의 비나이 디타존 작가는 "다큐 사진 작업은 역사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기록하는 것이자 새로운 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태국이 좀 더 개척되



비나이 디타존 작 '2020년 11월 태국 방콕'

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포럼이 생중계되는 동안에는 마약 전쟁, 홍콩 시위 등 실제적 사건에 대한 현지 대중들의 시각을 궁금해하거나, 초상권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으로 에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작가 로렐 출은 "홍콩 시위 초기에는 초상권 문제가 민감했고 저널리스트로서 목격하고 찍은 사진을 게재할 때 많은 고민을 했다"며 "언론인들이 찍은 사진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참여자들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요즘의 디지털 환경은 '이미지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 대해 로렐 출은 "격동의 시대에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포토저널리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제욱 작가는 "각 나라에서 헌신적으로 민주 인권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여작가들의 작품은 오는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열리는 '국제포토저널리즘 포럼 작가 초대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181점이 함께 전시되며 광주일보 보도 사진 '광장의 사진들', 이세현·지중의 작가 초대전 '사진이 힘이 세다' 전도 열린다. 전시와 포럼 내용은 아시아사진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일요일 휴무.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 창단 15주년 음악회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난 15년간 플루트 연주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연주를 선보여온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이 이번에는 '판타스틱 플루트'를 주제로 한 연주회를 준비했다.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 창단 15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는 18일 오후 8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음악평론가 김윤선의 해설과 함께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변성호 광신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플루티스트 배혜경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1부는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으로 시작해 그레이스 플루트 주니어 앙상블이 비제 '카르멘 서곡'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윤한나의 협연으로 '넬라 판타지아'와 레하르 오페라 '쥬디타' 중 '내 입술, 그 입맞춤은 뜨겁고'를 선보인다.

또 플루티스트 배혜경과 이미림이 도플러의 '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안단테와 론도 작품번호 25'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플루티스트 윤혜리(사진)가 협연자



로 무대에 올라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을 들려주며, 최성현의 '아리랑 환상곡'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미국 커티스 음악원과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대학원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윤혜리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프랑스 포르니 국제 페스티벌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공유역사 다양한 시선 사진의 힘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국제포토저널리즘 포럼 작가 초대전' 오픈 포럼이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화가 눈으로 본 도시...시간 속의 도시

'조형 21회' 27일까지 문예회관

'화가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와 미술 단체를 선정,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조형 21회'(회장 주성범)다.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동문들의 모임인 '조형 21회'는 지난 1992년 남도예술회관에서 첫 그룹전을 연 이래 '광주 문화유산의 숨결을 찾아서', '향기있는 동행', '공감! 마음의 언어', '녹색 환경 프로젝트-초록물고기'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왔다.

오는 27일까지 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올해 전시는 '시간 속의 도시'를 주제로 열린다. 전시에는 감미마·강선호·강유안·곽선미 서기문·송필용·신호재·이석원·이정가·전현숙·조성숙·한은혜 작가 등 개성 있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4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기를 시도하며, 구상과 추상화 등 다채로운 회화작품을 선보인다.



주성범 작 '정복자의 꿈'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며 문예회관 공연이 있을 때는 오후 7시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연말 국악대잔치 명인 다 모였네

광주시립창극단 18일 문예회관

명창 신영희·김수연 등 총출동

연말을 맞아 흥겨운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2020 송년 국악한마당 '일세지흥'을 통해 2020년의 대미를 장식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 명인, 명무들이 등장해 국악대잔치를 벌인다. 명창 신영희를 비롯하여 김수연, 강정숙, 명인 김정만, 원장현, 명무 채향순, 진유림 등이 참여하며,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인 유영애도 명창도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한다.

첫 무대는 시립창극단 기악부의 '태평소와 관현악'으로 문을 연다. 이어 명창 강정숙과 시립창극단 단원이 함께 '호남가'와 '노들강 초록물',



신영희

강정숙

'님 그린 회포'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준다. 또, 명무 채향순, 진유림은 시립창극단 무용부 단원과 '一舞何舞(일무일무)'를 무대에 올리며 이밖에 '흥타령', '성주풀이', '남원산성', '산타령'도 선보인다. 공연 대미는 '판굿과 버구춤'으로 장식한다.

이날 공연은 24일 오후 6시 KBC광주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6-03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민희 시인 최문경 작가 황옥주 수필가 임동욱 수필가 안영옥 작가

### 광주문학상·올해의 작품 선정

광주문인협회 18일 시상식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식·문인협회)는 제 33회 광주문학상과 올해의 작품상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인협회는 최근 심사를 열어 광주문학상 본심에 오른 총 12명의 작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원범, 강만, 김중, 김용하, 노창수, 오덕렬, 탁현수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우수성, 문학적 업적, 협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조민희의 '복숭아밭에 내리는 봄비'(시조), 최문경의 '어머니의 부표'(소설), 황옥주의 '별을 보며'(수필), 임동욱 '무등산은 하늘이여라'(수필), 안영옥의 '실마벌사 할머니'(동화)가 올해의 수상작으로 뽑혔다.

또한 올해의 작품상에는 각각 윤소천(수필)과 신서영(시)의 '해당화', '봄의 동침'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드림아트홀(광주시 남구 천변로 392)에서 총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